가족에게 보내는 설날 편지

늦깎이 한글 배운 이화심 할머니

“손자에 편지 쓸 수 있어 눈물나”

정성 들여 한자한자…80년 가슴앓이 사라져

“늦었지만 서툴게라도 편지를 쓸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납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한글로 겨우 이름 석 자만 쓸 줄 알았던 이화심(82)할머니는 최근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재미에 푹 빠졌다. 또박또박 써 내려간 이 할머니의 편지 글씨는 남 못지않는 멋진 글씨체를 자랑한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남모르게 연습한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손 편지에선 손자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졌다.

신안군 하의도에서 육 남매 중 셋째딸로 태어난 이 할머니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태어난 탓에 학교에 다닐 겨를도 없이 밭으로 내몰려 일을 했다”며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터라 눈 동냥으로 이름은 쓸 줄 알았지만 읽기는 힘겨웠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할머니는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가슴 아픈 추억 하나를 꺼냈다. “지금은 29살인 손녀가 4살 무렵 외가인 우리집에 잠시 왔는데 틈만 나면 동화책을 가지고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읽어달라고 했다”며 “지금은 세상에 없는 남편이 도와줘서 해결이 됐지만 그땐 정말 난감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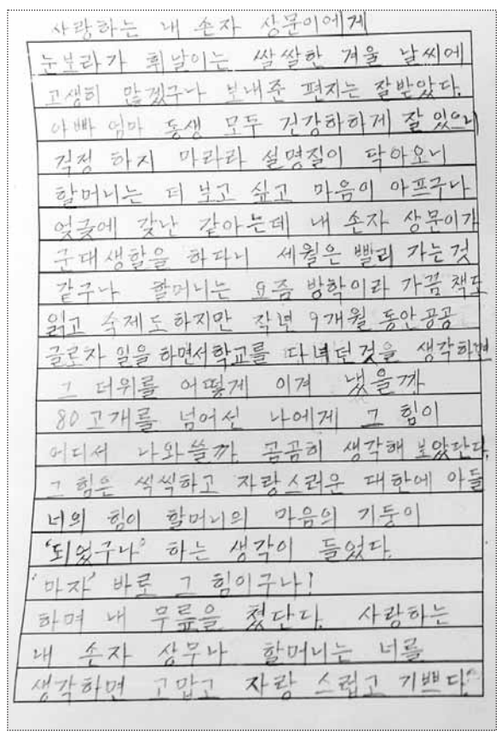
이 할머니는 하의도에서 만난 남편과 19살에 결혼한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덕에 한글을 배우지 않아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혼자 집을 지켜야 했던 할머니는 “남편 없는 세상이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버스노선도를 볼 때 등 일상 생활에서 글 읽기가 필요한 때는 ‘글을 아는’ 남편이 있어서 걱정이 없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럽기도 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 못 배웠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며 지내던 중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집 근처 목포공공도서관에 한글을 가르쳐주는 훈민정음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떻게든 글을 읽고 싶은 욕심에 지난 2011년 76세의 늦은 나이에 훈민정음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글을 배우는 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것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했다. 3년 과정의 대학을 연이어 2번 다니면서 6년이 흘렀고 2년 전부터는 직접 편지쓰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혼자 생각나는 데로 쓰면서 잘 모르는 것은 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그 연세에 힘들게 뭘 배우려고 하시냐?”라는 타박도 받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오기와 욕심으로 버티며 글씨를 갈고 닦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간 손자 상문이가 얼마 전 전화를 해 왔는데 “할머니 편지 잘 받아 읽어봤어요. 정말 감동스럽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 할머니는 “그동안의 가슴앓이가 순식간에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서툴지만 배워서 손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이 할머니는 “이제라도 글을 배워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배우면 달라진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며 환히 웃었다.

/목포=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랑하는 내 손자 상문이에게

눈보라가 휘날리는 쌀쌀한 겨울 날씨에
고생히 많겠구나 보내준 편지는 잘받았다.
아빠 엄마 동생 모두 건강하게 잘 있으니
걱정 하지 마라라 설명절이 닥아오니
할머니는 더 보고 싶고 마음이 아프구나
엊그에 갖난 갈아는데 내 손자 상문이가
군대생활을 하다니 세월은 빨리 가는것
같구나 꼴머니는 요즘 방학이라 가끔 책도
읽고 숙제도 하지만 작년 9개월 동안공공
글로자 일을 하면서학교를 다녀던것을 생각하면
그 더위를 어떻게 이겨 냈을까
80고개를 넘어신 나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와쓸까 곰곰히 생각해 보았단다.
그 힘은 씩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에 아들
너의 힘이 할머니의 마음의 기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자' 바로 그 힘이구나!
하며 내 무릎을 쳤단다. 사랑하는
내 손자 상무나 할머니는 너를
생각하면 고맙고 자랑 스럽고 기쁘다.

北에 띄운 사모곡 탈북민 서은아씨

“꼭 안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지금은 시부모가 엄마·아빠…빨리 통일되길

“엄마, 허리는 좀 어때? 다른 데는 아픈데 없지. 보고 싶어…”

서은아(여·35)씨의 어머니는 38선 넘어 북한에 있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3년 전이다. 은아씨 기억 속의 엄마는 곱고 예쁘다. “이제는 엄마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려앉았겠죠?” 그리움이다.

북한이탈주민인 은아씨는 나주에 산다. 2011년 ‘좋은 남자’를 만나 아들 둘을 둔 엄마다. 그래서 엄마가 더 그립다. 생일·설날이면 더하다. 아이들과 외식할 때 앞 자리에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는 단란한 가족을 보면 눈물이 난다.

은아씨는 주변에 일가붙이가 없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다. 남편과 아들 둘이 있고, 부모가 있어서다. 그녀는 “아무도 없으니 남편 부모가 제 부모가 됐어요. 그냥 엄마·아빠라고 불러요. 시어머니는 진짜 내 엄마예요”라며 시부모를 자랑한다.

물론 결혼까지는 평탄하지 않았다. 시부모는 처음 탈북민이라 그냥 싫어했단다.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했단다. 그렇게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단다. 나를 나로 보지않고 괜히 트집 잡는 걸로 생각되어서 였다. 남편이 가운데에서 잘 풀어줘서 지금은 시부모가 엄마·아빠가 됐다.

은아씨의 설 추억은 ‘줄서기’라고 했다. 명절에 고향을 가기 위한 기차표 예매가 아니라 ‘명절 배급’을 받기 위해서였단다. “사흘 동안 줄을 섰어요. 엄마와 아빠는 일을 나가야해서 어린 동생들과 셋이서 돌아가며 줄을 섰어요. 방앗간에서도 이틀간 줄을 선 기억이 나요. 북한은 명절이면 집집마다 떡을 만들어 먹는데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떡방아를 찌을려면 이틀은 걸렸어요. 고생 끝에 만든 떡은 꿀맛이었어요.”

북한의 설은 남한과 다르다. 남한은 음력설을 쇠지만 북한은 양력설을 쇤다. 북한 여성들은 평소에도 한복을 입지만, 명절 때면 꼭 한복을 챙겨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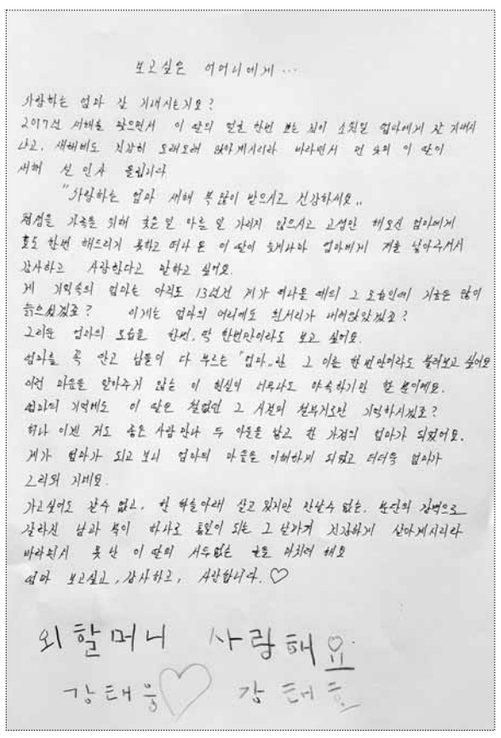
새해 첫날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동상에 참배를 하는 일이다. 불가피하게 동상에 가지 못할 때면 집안에 걸린 초상화에 예를 갖췄다고 한다. 그게 새해 첫날의 시작이란다. 참배 뒤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여 윷놀이를 한다거나 옹기종기 모여 TV를 봤다고 한다. 남한처럼 여행이나 외식은 엄두를 내지 못했단다.

은아씨 엄마는 큰 딸(은아)에 대한 기대가 컸단다. 엄마는 늘 “큰물에서 놀라”고 했다. “집안에 있는 천재보다는 나돌아 다니는 바보가 낫다”며.

그녀는 엄마의 등살에 떠밀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도시인 청진으로 갔다. 이모집에서 살며 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청진2사범대에 입학했지만 그만뒀다. 그리고 나진·선봉을 거치고 두만강을 넘어 탈북했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다. ‘엄마 얼굴 한번 보는 것’이라고. 그리고 편지에 담았다. “사랑하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옆에서는 은아씨의 아들 태웅(6)이가 “외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라고 종알댄다.

/나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고싶은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엄마 잘 계시는지요?
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딸의 멀고 먼 먼 북녘 하늘 넘어 엄마에게 갈 거예요.
새해에도 건강히 오래도록 엄마께서는 마음편히 언 땅이 새해 신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처음은 기억을 되려 찾은 만큼 잘 기억이 없으시고 고생만 해오신 엄마에게 혹도 한번 해드리지 못하고 떠나 온 이 딸에 눈에서나마 엄마에게 겨울 넘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 기억속의 엄마는 아직도 13년전 제가 떠나올 때의 그 모습인데 기분은 많이 늙으셨겠죠? 이게는 엄마의 어디에도 흰서리가 내려앉았겠죠?
그리운 엄마의 모습을 단지, 딱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엄마를 꼭 안고 남들이 다 부르는 "엄마..." 그 이름 한번만이라도 불러보고 싶어요
아픈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야속하기만 한 불이에요.
엄마의 기억에도 이 딸은 철없던 그 시절의 철부지로만 기억하시겠죠?
벌써 이젠 저도 슬픈 사람 따라 두 아들을 낳고 한 가정의 엄마가 되었어요.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더욱 엄마가 그리워 지네요.
가고싶어도 갈수 없고, 한 번을 아래 싶고 보지만 만날수 없는, 분단의 장벽으로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기라 바라면서 못 난 이 딸의 서두없는 글을 마치려 해요
엄마 보고싶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외할머니 사랑해요
강태웅 ♡ 강태웅

설 연휴 큰 추위 없이 가끔 눈·비

설 연휴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때때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6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와 전남 지역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첫날인 27일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 중에 눈 또는 비가 오다가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설 당일인 28일에는 광주 낮 최고기온이 8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휴 끝자락인 29일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접근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으나 30일에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7일과 30일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을 것으로 보여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36	달뜸	05:55
해짐	17:55	달짐	16:25

한파 없어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한파가 누그러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뒤 흐림	-4/8	보 성	맑음뒤 흐림	-7/8
목 포	맑음뒤 흐림	-4/7	순 천	맑음뒤 흐림	-3/9
여 수	맑음뒤 흐림	-2/7	영 광	맑음뒤 흐림	-7/6
나 주	맑음뒤 흐림	-8/7	진 도	맑음뒤 흐림	-2/7
완 도	맑음뒤 흐림	-2/8	전 주	맑음뒤 흐림	-5/7
구 례	맑음뒤 흐림	-8/8	군 산	맑음뒤 흐림	-6/6
강 진	맑음뒤 흐림	-5/8	남 원	맑음뒤 흐림	-9/7
해 남	맑음뒤 흐림	-7/7	흑산도	맑음뒤 흐림	2/8
장 성	맑음뒤 흐림	-7/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남서	1.0~2.0
	먼바다	남서~서	0.5~1.0	남~남서	1.5~2.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남서~서	0.5~1.0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남서~서	1.0~1.5
	먼바다(서)	북서~북	1.0~1.5	남서~서	1.0~2.0

◇ 생활지수

뇌졸중	매우높음
감기	매우높음
체감온도	관심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14	00:36
	19:02	13:33
여수	01:53	08:38
	14:41	20:28

◇ 주간 날씨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2/1(수)	2(목)
2/5	-4/8	3/7	0/5	-3/7	-1/8	0/8

이용부 보성군수 검찰 소환

자택 용지 매입 의혹 등 조사

이용부 보성군수가 검찰에 소환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이 군수를 소환해 자택 용지 매입 의혹을 비롯해 빛축제 과정의 부정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자택 신축 용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토지를 헐값에 판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과 건축비용을 낮게 산정한 업자 박모(63)씨, 공무원 등 9명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함께 송치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비서실을 비롯한 보성군청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 등을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공문서 변조·입찰방해 등) 등으로 각각 구속된 서기관 김모(58)·사무관 이모(53)씨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발암물질 물의 세방산업 “공장 라인 이전하겠다”

내년까지 평동산단으로…배출량 80% 감축키로

검증위, 광주시에 배출량 지속 감시·역학조사 촉구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해온 광주 세방산업이 발암물질 사용 공정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발암물질을 쓰는 공장 라인을 하남산단에서 평동공단으로 2018년까지 이전하고 배출량도 80%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실태 등을 조사한 검증위원회는 ‘세방산업 인근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지속적인 배출량 조사’를 광주시에 촉구했다.

25일 세방산업 TCE 배출 검증위원회가 광주시에 제출한 최종보고자료에 따르면, 검증위는 20만명이 사는 하남산단·수완지구 주변 주거지역 TCE 측정값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위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4월 광주시로부터 시설 개선을 요구받고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던 10월 측정한 결과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탓이다.

TCE는 중추신경계,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세방산업은 납축전지에 들어가는 격리판 제조 과정에서 함유된 오일 추출제로 썼다.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인 TCE의 양은 지난 2009년 74t, 2010년 201t, 2011년 310t, 2012년 439t, 2013년 250t, 2014년 294t으로, 전국 배출량의 30%에 달했다. 세방산업에서 매년 수백t의 발암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와 환경부, 업체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검증위는 TCE 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용량 대부분이 굴뚝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장과 40m가량 떨어진 광주 광산소방서 근무자들과 세방산업 생산직 근로자들이 TCE로 인해 건강에 일정부분 악영향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증위는 특히 소변 중 TCE 대사산물인 소변 중 삼염화초산 농도 관리기준(100 mg/g crea)을 넘지 않았던 근로자 1명이 신장암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확인됐는데, TCE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증위는 세방산업 인근 하남 3지구가 2018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있어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암물질·주요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실태 조사와 결과 공개, 하남·평동산단 주변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에 대한 환경부 건의, 광산소방서 근무 이력이 있는 소방관의 건강 추적관리 등을 시에 권고했다.

검증위 관계자는 “세방산업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뿐아니라 하남산단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해야한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세방산업 인근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환경부에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병석 전남대 총장

다음달 1일 취임식

전남대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정병석 제 20대 총장 취임식을 연다.

취임식에는 지병문 전 총장을 비롯, 전임 총장과 노동일 총동창회장, 광주·전남 지역 주요 기관장, 국회의원, 퇴임 교직원, 교직원, 학생 등 1000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원 불성실 응답에 서비스센터 찾아가 밥솥 부수며 행패

쌍나팔

○…“밥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에 불성실하게 응답했다며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밥솥을 망치로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 서행.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모(39)씨는 24일 오전 11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의 서비스센터에 밥솥과 망치를 들고 찾아가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경찰은 최씨가 몇 달 전에 산 밥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직원이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 같다며, 최씨가 서비스센터에서 망치로 밥솥을 부순 뒤 직원들을 향해 망치를 겨누며 “센터장 나와, 오늘 센터장 죽여버린다. 나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지르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

/ 전은재기자 ej6621@